

2017년 5월 29일, 성산읍 삼달2리 삼달2리경로당, 송정희 조사.

제보자1: 강산옥(여, 1927년생, 성산읍 삼달2리)

제보자2: 김해생(여, 1923년생, 성산읍 삼달2리)

- 줄거리: 옛날에 저승 갈 때가 안된 사람이 저승 가게 되면 저승에서 강아지를 내주며 따라가라고 한다. 그 강아지를 따라가게 되면 이승으로 돌아온다고 한다.

[제보자2] 옛날에 저승 가그네 때 안 됴민, 흰 강생이 헉나 내노민, 그 조춤에 톨앙 나오랏젠. 강생이 노민 강생이 쫓아 돌아가렌 허민 돌아오랏젠, 경 행 살안.

[청중] 말 못 알아먹으켜.

[제보자1] 옛날 할망덜 저승을 가나네. 너 때가 안 뵈덴 시간이 안 뵈덴. 돌아가렌, 이제 허난 어딜 돌아갈 디 모르난, 강아질 놉네 이 강아지 가는 대로 값이민 이승을 가진덴 허난, 강생이 쫓안 오란 깨난 보난 이승이라.

게난 꿈 속에서 이젠 저승사자가 오란, 멍 잇인 걸 제 멍 못 산 사름 찍신 걸 잡아가분 거라.

그디 가난 넌 해당이 아니난 돌아가렌, 게난 이젠 돌아오젠 해도 좇지 못허난, 강아질 내놔, 이 강아지 가는 대로만 가렌 헨 돌아왔젠 허난, 거 거짓말산 디 우린 들은 뿐. 본 디 엇어.

[제보자2] 옛날 할망덜 들음 뿐, 봤어?

[제보자1] 본 디 엇어.

[제보자2] 옛날 역사덜이주.

[제보자1] 본 디 엇어.

- 핵심어 : 저승, 강생이, 이승, 저승사자, 강아지